

## News

### 토스뱅크, 7월 출범 목표..당국 본인가 심사 보완사항 대응

데일리안

토스뱅크는 당초 이번 달 중 인가를 받고 오는 7월 영업을 시작할 계획. 금감원은 지난 2월 인가심사 요건 충족 심사를 위한 실지조사를 진행 본인가를 위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수정·보완을 요청, 5월 12일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토스뱅크 본인가 안 의결 계획

### 금소법에 전자금융법까지...빅테크, 규제망 속으로

매일경제

규제 사각지대'에서 영업해온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대출·보험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빅테크는 합병·분할 때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는 등 경영 통제도 받게 된다.

### 지방은행, 가상화폐 거래소와 합종연횡..."신규 고객 잡아라"

아주경제

지방은행들은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이 의무화되면서, 아직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과의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 그중 부산은행은 현재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복수의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사실상 최대 4년→5년6개월

연합뉴스

혁신금융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에 관련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 정부가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정비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기간이 기존 최대 4년에서 5년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 미래에셋증권, 신한금투에 라임펀드 손해 관련 구상권 청구

뉴스1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전액을 배상한 '라임 무역금융펀드' 관련 구상권을 신한금융투자에게 청구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내준 총 91억원의 라임펀드 배상액 중 신한금융투자의 책임도 있다며 배상액 일부를 부담하라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 시장금리 상승에...생보사 공시이율 하락세 '주춤'

연합인포맥스

생명보험사들의 공시이율 하락세가 시장금리 상승으로 일부 완화될 조짐이 보인다. 한화생명 등은 이달 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을 전달보다 1bp 상향한 2.26%로 조정. 교보생명 또한 보장성과 연금,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을 전달과 같은 수준 유지 결정.

### 카카오페이, 국내 첫 디지털손보사 첫발..이달말 예비인가

비즈니스위치

금융위원회는 이달 28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손보사 설립 예비인가 안건을 의결할 예정. 예비인가 승인을 받는 대로 법인 설립, 본허가 승인 등 절차를 밟아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 당사는 인슈어테크 기반으로 사용자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 설 계획

### 캐롯손보, 퍼마일 자동차보험료 6.5% 인상

뉴스스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은 오는 20일부터 퍼마일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6.5% 올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MG손해보험이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평균 2% 올렸으며, 이달 10일에는 롯데손해보험이 개인용과 영업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2.1% 인상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